

우리 밀 신제품 '한면', 소비자 평가서 인정

농진청, 질감·조화·맛 등서 좋은 평가... 시중 라면보다 선호도 19%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국산 밀 신제품 '한면'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면' 밀과 수입 밀로 만든 유방면을 각각 같은 라면수프로 조리해 소비자·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식미 검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면'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수입 밀 라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면'은 수입 밀 대비 부드러움, 쫄깃함, 목 넘김, 국물과의 조화 등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맛과 식감도 좋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격 측면에서는 수입 밀 라면(1,000원/봉)보다 44% 높은 1,440원에 '한면' 라면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산 밀을 활용한 가공식품 연구·개발 필요성과 향후 구매 의향도 긍정적이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40대 여성 소비자는 "한면으로 만든 라면이 시중 라면과 비교해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국산 밀의 장점과 같이 홍보한다면 우리 밀 라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립종자원은 품종 등록을 위해 '한면'을 재배 심사 중이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밀 신제품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종자를 증식, 현장 실증 재배를 원하는 밀 경영체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1.3%(2022년 기준) 내외로 낮은 편이고 밀가루 용도별 소비량은 면류가 40% 내외로 가장 많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품종개발자에게 제공, 품종 개발단계부터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개발을 지원해 국산 식량작물 소비를 끌어 올리고 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2024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에서 가금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림, 가금류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4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선정

종합식품회사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2024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에서 가금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17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진행돼 올해 8회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년 HACCP 기준을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평가해 운영 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집유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생환 본부장과 한국농축산연합

회 이승호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올해의 수상 기업과 지자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업과 관계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저희 농식품부도 축산물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여 우리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하림은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지난 2012년 하림정읍공장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시스템을 도입, 2019년에는 익산공장에 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 리를 구축하고 생산라인에 HACCP과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역산=이재춘 기자

중소 47.2% "작년보다 자금사정 악화돼"

중기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47.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됐다'(31.7%)는 응답 대비 15.5%p 증가한 것이다. 반면 '호전됐다'는 기업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됐다는 기업 비중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 '판매부진'(59.3%)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4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대출금리 인하'(7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38.0%)를 가장 많이 꼽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변동을 묻는 질문에는 '변동없음'(49.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은행 적정 기준금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2%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동결' 응답은 34.8%를 차지했다.

내년 은행 이용 여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 차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3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의 '악화'(17.7%) 응답보다 14.9%p 증가한 것이다.

심사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24.0%로 지난해 19.7%에 비해 4.3%p 높아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매출 감소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전주시 교동 낙수정 군경모지 일대에서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은행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경제상황 여파로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의 온정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간부 전원, 제64기 신입행원 등 30여명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에서 추천한 독거어르신 등 20가구에 연탄 3,000장과 백미,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64기 신입행원들은 "동지들과 함께 직접 연탄을 나르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건협 전북, 어려운 이웃과 지역인재 위해 총 6600만원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도내 어려운 이웃과 지역인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11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하여 지난 20일 무주군을 끝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방문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총 6,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인한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도내 3,300여 전문건설업체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시행한 금번 성금



전달은 협회는 늘 지역과 더불어 공존하며 상생발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는 지역에 파스함을 전하는 성금전달을 비롯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 성금과 물품 등을 전달하며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이웃돕기 지원사업과 전문건설 장학사업 및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함께할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다같이 잘 사는 우리지역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계획·시행하고 있다. /김육기 기자

건협 전북, 전북자치도에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연방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김관영 도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실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복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금일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5억5000만원이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들이 매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육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